

상실과 외상: 『술라』의 주제적 통일성 연구*

신 영 현
(한성대학교)

Shin, Younghun. “Loss and Trauma: A Study on the Thematic Unity of Toni Morrison’s *Sul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018): 85-110. Toni Morrison’s second novel *Sula* is a centrifugal story where a lot of themes, motifs, and symbols compete to draw critical attention. Seemingly decentering and diffusive, however, *Sula* has a remarkable thematic unity, in that all of the three protagonists suffer from loss and trauma and try to handle them in their own unique ways. The story of Shadrack, a World War I veteran works as a frame to interpret stories of Sula and Nel. While Shadrack was witnessing an uncanny scene in the midst of a battle, he was bombed and became unconscious. Even though he was hospitalized for more than one year and eventually regained consciousness, he almost lost complete recollection of the accident. Returning home, he enacts a holiday known as National Suicide Day to deal with his trauma. Similarly, Sula and Nel struggle with their own loss and trauma. As for Sula, she suffers from the emotional loss of her mother’s love, which was worsened by her accidental homicide of Chicken Little, a town kid. Nel also suffers from the trauma of her husband and her best friend’s betrayal. Her trauma however, teaches her that she should struggle to put off the false self-sufficiency to find her true identity. Though each character experiences different kinds of wounds respectively, the author seems to support their quests for the reason that they face and struggle with them to the end. (Hansung University)

Key Words: *Sula*, loss, trauma, thematic unity, identity

I. 서론

토니 모리슨의 두 번째 소설 『술라』(*Sula*)는 출판과 더불어 많은 주목을 받아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주인공의 정체성탐구와 이와 관련된 공동체와의 관계설정에 주목하는 연구이다. 예컨대, 김명주는 “『술라』를 1970년대 문화현상으로 보고, 술라의 정체성 탐구 양상의 특이성에 주목”(282)한다. 이승은은 “술라는 백인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아추구를 창조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죽는다”(146)고 보면서도, “희미하게 시작되는 넬의 인식을 통해 흑인여성의 자아를 억압하는 현실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술라의 변혁의 정신을 긍정하고 있다”(147)고 주장한다. 이는 술라라는 개성 있는 흑인여성의 정체성 추구가 다른 흑인여성과의 연대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과제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작품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부류로는 내러티브상의 특징, 그 중에서도 이항대립을 해체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차민영은 “술라를 중심에 두고 여러 등장인물들과 이항대립의 구도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분석”(231)하면서, “『술라』에서는 이러한 이항대립이 초래하는 모순과 아이러니를 통해 새로운 인물과 가치관이 창조되고 있다”(232)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모리슨이 의도한 바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의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낸 정의”(249)일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차민영은 결론짓는다. 이는 『술라』에서 모리슨은 모든 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는 서구의 이분법적 전통을 거부하고 경고한다고 보는 헌트(Patricia Hunt)의 접근(444)과 유사하다.

세 번째 부류로는 정신분석학이나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본 작품에 접근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권택영은 라캉이론을 토대로 하여 술라를 상징계가 억압한 몸으로, 넬을 타자(몸)를 모르는 주체로 해석하면서, 술라는 “상징계가 추방한 몸이지만 실제계로 되돌아와”(17) “넬과 주드의 주체가 잘못 세워진 것을 드러낸다”(17)고 해석한다. 본 작품을 성장소설로 읽는 접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모리슨이 『술라』를 위시한 일군의 “여성 성장소설을 새로운 흑인여성상의 탄생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형태로 개정하고 있다”(157)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살바토르(Anne Salvatore)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확실히 『술라』는 여러 모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무엇보다 카민(Karen Carmean)의 말대로 『술라』는 “주체와 구성에 있어서 권위를 지닌 단일

한 해석을 거부하기”(32)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주제 이외에도 『술라』는 선악의 문제, 정신과 몸의 문제, 진실과 담론의 관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본 작품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복잡한 캐릭터의 소유자들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 술라(Sula)에 대한 평가도 평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퍼먼(Jan Furman)은 술라의 실험적 삶을 긍정하면서 “마치 술라와 넬의 사랑과 우정이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보려는 듯이 자신의 주제인 소녀 시절을 기리는 방식으로”(23) 접근한다. 퍼먼은 “『술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 선언서”(27)라고 보며, 이를 가장 잘 구현 하는 인물이 술라라고 본다. 반면 살바토르는 술라가 사랑의 능력을 권력과 소유욕으로 대체한다고 비판한다(162). 새드랙(Shadrack)이나 넬(Nel) 역시 선악의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 힘든 복잡한 인물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술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술라와 넬의 관계를(혹은 관계만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본 작품에서 술라와 넬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새드랙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두 여성 주인공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본 작품이 지닌 주제상의 통일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주제에 천착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동안 새드랙에 주목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셋별은 “새드랙이 겪은 전쟁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가 흑인의 남성성을 포괄하는 흑인의 정체성을 지각하는 경험을 획득하고 대안적인 성취를 이루는 흑인 남성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87)고 해석한다. 잭슨(Chuck Jackson) 역시 “『술라』는 바텀(Bottom)마을을 관통해서 행진하는 악명 높은 새드랙의 이미지들과 관련된 중심 플롯으로 시작되고 끝난다”(375)고 지적하면서 그가 제정한 전국자살일(National Suicide Day)이 작품 내의 다른 사건들을 포괄하는 틀이라고 주장한다.¹ 그러나 비록 이런 연구들이 새드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포착했면서도 이를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술라나 넬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기적

¹ 새드랙이 작품의 구조상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 비평가들로는 잭슨 이외에도 헌트(444)와 라이스(Herbert W. Rice 39) 등을 들 수 있다.

으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새드랙의 이야기가 단순히 구조상으로 『술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술라와 넬의 역동적 관계를 제대로 조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자 주제적 통일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새드랙의 이야기가 이후에 이어지는 넬과 술라의 이야기를 일종의 액자처럼 둘러싸면서 후자를 해석하는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II. 본 론

모리슨은 서문에서 자신은 본 작품에서 “남성에 의해 중개되지 않은 여성들 간의 우정이란 어떤 것인가?”와 “사회의 인정을 벗어난 흑인 여성들에게는 어떤 선택들이 가능한가?”(xiii)²라는 주제를 다루었다고 설명한다. 한 마디로 ‘여성에게 자유가 가능한가’ 혹은 ‘여성은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가 『술라』의 핵심 논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술라』와 관련된 연구 중 대부분이 모리슨이 밝힌 이러한 틀 안에서 본 작품에 접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본 작품의 시작과 끝을 차지하고 있는 새드랙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남성에 의해 중개되지 않은 여성들 간의 우정”이라는 주제에서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새드랙이라고 보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새드랙이 넬과 술라의 우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지나친 억측이 아닐 수 없다. 새드랙이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든 넬과 술라의 역동적인 관계를 조명하는 데에 기여할 때에 비로소 본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가 규명될 수 있다.

² Toni Morrison. *Sula*. (New York: Vintage, 2002) 이하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병기하기로 한다.

2.1 새드랙 이야기: 전쟁과 상실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한 몸부림

모리슨은 서문에서 “원래 『술라』는 ‘2차대전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전국자살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문장으로 시작”(xv)하는 걸로 구상했다고 밝힌다. 소설의 시작으로는 다소 급작스럽다는 이유에서 나중에 바텀마을 역사에 대한 소개를 일종의 로비처럼 추가했으며, 만약 이와 같은 “온화한 환영”(xvi)이 없이 원래의 구상대로 새드랙의 이야기로 『술라』를 시작했다면 “독자를 새드랙의 상처 받은 마음과 곧장 대면하도록 밀어 넣게 되었을 것”(xvi)이라고 설명한다. 새드랙의 고통이 소설의 첫 대목에서 독자가 대면하기에는 다소 급작스럽다는 이유에서 일종의 서문에 해당하는 바텀마을 이야기를 덧붙이긴 했지만, 모리슨이 처음부터 전쟁이라는 외상적 경험이 새드랙이라는 한 흑인 남성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하려는 “필사적으로 창의적인 그들의 생존 전략”(xvi)이라는 틀 속에서 『술라』를 풀어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술라』의 중심 이야기인 벨과 술라의 정체성탐구 및 그들의 연대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설정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전쟁과 외상 그리고 이의 극복이라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길버트와 구바(Sandra M. Gilbert & Susan Gubar)는 『술라』가 전쟁기간(war years)을 여성 및 그들의 상호관계의 파괴와 연결시킨다고 본다(Maxwell 232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그의 건전한 광기가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새드랙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444)³는 헌트의 주장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잭슨 역시 『술라』에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전국자살일에 대한 서술이 다른 사건들을 에워싸고 있다”(375)고 본다. 맥스웰(Marilyn Maxwell) 역시 “죽음의 이미지라는 틀에 둘러싸인 『술라』는 피할 길 없어 보이는 폭력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Framed by images of death, the text is replete with references to the seemingly inescapable violence. 232)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새드랙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의 이야기를

³ 헌트는 새드랙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세 개의 장이 모두 전쟁과 관련된 연도를 배경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즉 1차대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1919년 장과, 2차대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1941년 장, 그리고 마지막 장의 배경인 1965년은 모두 미국의 북베트남 공습을 상징하는 연도들이다(445).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새드랙은 1차대전에 참전했다가 적과의 첫 번째 조우에서 적의 포탄을 맞은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얼굴이 날아가는 것”(8)을 목격한다. 특별히 끔찍한 점은 “머리를 잃은 병사의 몸통이 뇌로부터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고집스럽게 계속 달렸다”(8)는 점이다. 이는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언급한 ‘기괴함’(the Uncanny)의 전형적 사례이며, 정신분석에서는 이를 외상적 체험이라고 부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외상적 체험이란,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는 체험”(374)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외상이란 “갑작스럽거나 재난적인 사건의 압도적인 경험”(Caruth 11)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전쟁, 자연 재해, 테러, 성폭행 등이 있다. 이러한 끔찍한 체험을 한 직후 새드랙 자신도 포격에 정신을 잃는다. 의식을 되찾은 새드랙은 극도의 두려움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이 와중에 자신의 “손가락들이 잿의 콩나무처럼 쟁반과 침대 위로 온통 엉망진창으로 자라나기 시작”(9)하는 환상에 시달린다. 새드랙이 보이는 환각 증상은 정신병 환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이며,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세이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달랑 “현금 217 달러와 정장 한 벌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으로 보여지는 서류 봉치”(10)만 쥐어진 채 퇴원 조치가 내려진다. 텍스트는 새드랙의 입원 생활을 겨우 몇 줄 되지 않는 하나의 장면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 이 부분을 읽는 독자는 새드랙이 비교적 짧은 기간 입원해 있었다고 짐작하게 된다. 그러다가 “일 년도 넘게 있었지만 온전히 기억해 낼 수 있는 날은 여드레뿐인 안식처를 떠났다”(11)는 서술을 통해 저자는 새드랙이 오랜 시간 동안 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을 밝힌다. 이런 장치를 통해 저자는 일차적으로 새드랙이 받은 군 병원에서의 생활이 임상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기간이었음을 폭로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나아가서 새드랙이 참전한 그 수 년 동안의 세월이 그에게는 통째로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메타포임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결국 아직 사회로 복귀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드랙은 병원 문을 나선 지 한 나절도 채 되지 않은 때에 이름 모를 마을의 보도 연석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으려 하지만 간호사가 매어 준 신발 끈 매듭을 풀지 못해 한참을 씨름하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솟아오르는 히스테리와 싸웠다. . . . 갑자기 그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약하고 덩고 겁에 질린,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스물 두 살 . . . 과거도 없고, 언어도 없고, 친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 . . 그에게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 제멋대로인 크고 흉물스러운 손뿐이었다.

He fought a rising hysteria . . . Suddenly without raising his eyelids, he began to cry. Twenty-two years old, weak, hot, frightened, not daring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he didn't even know who or what he was . . . with no past, no language, no tribe, no source . . . he was sure of one thing only: the unchecked monstrosity of his hands. (12)

새드랙이 겪는 이 환상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구 자라나는 손가락이라는 모티프와 자신이 마치 나무처럼 운동능력이나 의지를 상실한 존재라는 자기 의식을 동시에 담고 있다. 슈라이버(Evelyn J. Schreiber)에 따르면, 여기서 새드랙은 “라캉적 의미의 조각난 몸”(83)이 되며, 이때 핵심은 “자신의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아무런 통제력도 없다”(83)는 데에 있다. 허먼(Judith Herman)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 상실, 붕괴의 위험”(68)은 심리적 외상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증상들이다. 문체의 심각성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새드랙이 자기 의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른다”(Schreiber 83)는 데에 있다. 이는 다시 새드랙이 겪는 문체의 본질이 ‘상실’임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새드랙은 자신이 입원한 상태로 지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부랑자로 몰려서 잡혀간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에서 변기 물에 비친 자신의 검은 얼굴을 보게 되면서 새드랙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블라인드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처럼 슬며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 얼굴을 보고 싶다는 예전의 마음. 그는 거울을 찾았지만 거울이 없었다. 결국 조심스럽게 손을 등 뒤로 돌리고 화장실 변기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 . . 변기 물에서 그는 익숙한 검은 얼굴을 보았다.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또렷한 검은색이어

서 화들짝 놀랐다. 그는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색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드러내며 그를 맞아주자 더는 바랄 것이 없었다. 기쁜 나머지 그는 담요 한쪽 끝을 놓고 자기 손을 힐끗 보는 모험을 했다. 손은 멀쩡했다.

Like moonlight stealing under a window shade an idea insinuated itself: his earlier desire to see his own face. He looked for a mirror; there was non. Finally, keeping his hands carefully behind his back he made his way to the toilet bowl and peeped in. . . . There in the toilet water he saw a grave black face. A black so definite, so unequivocal, it astonished him. He had been harboring a skittish apprehension that he was not real—that he didn't exist at all. But when the blackness greeted him with its indisputable presence, he wanted nothing more. In his joy he took the risk of letting one edge of the blanket drop and glanced at his hands. They were still. (13)

여기서 새드랙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요인을 자신의 흑인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상으로 인한 두려움의 심각성은 두려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 무엇인지조차 모른다”(13)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외상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극복은 많은 경우 정체성 회복과 맞물려 있는 과제가 된다. 새드랙에게 있어 이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결국 새드랙은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집중하는 싸움”(14) 즉 “공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공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14)을 하기로 결심하고 ‘전국자살일’을 선포한다. 새드랙이 전국자살일을 만든 이유를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도, 죽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 둘의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던 중 그는 일 년 중 하루를 죽음에 바친다면 모두가 죽음을 제쳐놓고 나머지 날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전국자살일을 제정했다.

It was not death or dying that frightened him, but the unexpectedness of

both. in sorting it all out, he hit on the notion that if one day a year were devoted to it, everybody could get it out of the way and the rest of the year would be safe and free. In this manner he instituted National Suicide Day. (28)

한 마디로 새드랙이 전국자살일을 제정한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자신의 외상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행동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새드랙의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차후에 등장할 술라와 넬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준거가 된다. 새드랙은 전쟁을 통해 인생의 일부를 통째로 상실하는 경험을 하며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아 붕괴의 위기를 경험한다. 새드랙은 자신의 흑인성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자아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며, 전국자살일의 제정을 통해 자신의 외상적 상처에 대한 극복을 추구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독자는 “술라와 넬이 상실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은 또한 어떤 외상을 경험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그에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 바로 이 질문이 본 작품의 주제적 통일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2.2 술라와 넬 이야기: 공동체와 전쟁을 벌이는 술라 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싸우는 넬

『술라』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술라는 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가이다. 그녀는 과연 가장 친한 친구의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빼앗아버리는 팜프 과탈인가? 아니면 사랑 없는 결혼과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공동체의 요구에 항복한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넬을 깨우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쓴 것인가? 이에 대한 평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예컨대 김명주는 술라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285)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스피러즈(Hortens Spillers)는 술라야말로 “새로운 여성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 . . 하나의 돌파구”(294)로 간주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흑인여성상은 확연히 다른 새로운 흑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말이다. 술라에 대한 호불호

의 감정과는 별개로, 술라의 문제점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만 몰입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아추구”(이승은 141)와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한 것”(김미정 63)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동의한다. 자신의 개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공동체의 평가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이 행동하는 술라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술라의 행동은 그녀가 공동체의 인습과 벌이는 전쟁의 맥락에서 보면 잘 이해된다. 외할머니 에바(Eva)와의 대화 도중 술라는 자신이 불에 타죽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집을 불사를 것이며, “할머니가 불을 끄도록 놔두기 전에 이 마을을 완전히 두 동강 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쪼개버릴 거예요”(93)라고 분노한다. 이를 보면 술라는 단순히 외할머니를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텀마을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마을 사람들을 향한 술라의 분노는 십 년 만에 만난 벨과의 대화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잘 지냈느냐’는 벨의 인사성 질문을 받고 술라는 “아직 누굴 목 졸라 죽이지는 않았으니 괜찮은 셈이야”(96)라고 대답한다. “누구 죽일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라는 벨의 질문에 술라는 “이 마을 사람 절반은 죽어 마땅하지”(96)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답한다. “나머지 반은?”(96)이라는 벨의 추가 질문에 대해 “질질 끄는 병으로 죽어야지”(97)라고 술라는 대답한다. 이러한 극도의 적개심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벨도 이것이 궁금해서 “메달리온이 그렇게나 나빠?”(96)라고 묻고, 이에 대해 술라는 “아무도 말해 준 적 없었니?”(96)라고 어이없어 한다.

술라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증오할 뿐 아니라 그녀 또한 마을의 공분의 대상이 된다. 술라가 마을 여자들의 공통의 적이 된 일차적인 원인은 “그녀들의 남편들과 딱 한 번씩 자고 그 다음에는 건드리지 않았다”(115)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속옷도 입지 않고 교회 저녁식사에 가서 김이 나는 음식을 사가지고 맛을 즐기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의 갈비나 코블레에 탄성을 지르지도 않으면

⁴ 술라는 벨에게 에바를 양로원에 보낸 이유를 에바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녀가 평생 딱 한 번 벨에게 에바를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121)는 언급을 통해 이를 반박한다. 사실 텍스트 어디를 살펴봐도 술라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술라』의 해석상의 어려움은 많은 경우 인물들의 말을 끈이끈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치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장치는 본 작품의 해석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서 그저 먹기만 했다”(114-115)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술라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이나 예절(decorum)따위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술라가 “자기들의 신을 비웃고 있다”(115)고 믿게 된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술라의 분노와 일탈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위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주어지는 장이 바로 <1922>년 장, 즉 그녀와 넬 둘 다 열 두 살이던 해에 벌어진 치킨 리틀(Chicken Little)의 죽음 사건이다. 술라는 우연히 만난 마을의 사내 아이인 치킨 리틀의 손을 잡고 빙빙 돌리다가 그 애를 놓치게 되고, 강물 쪽으로 날아간 치킨 리틀이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60-61). 줄지에 살인자의 처지가 되어 망연자실해 하는 술라에게, 넬은 “누군가가 봤어”(61)라고 다급히 말하며, 과연 그녀 말대로 강 건너편에 갑자기 한 형체가 나타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을 이어가던 텍스트는 이 부분에서 나타난 술라의 의식을 자유간접화법으로 처리하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그쪽에 있는 유일한 집은 새드랙의 집이었다. 술라는 넬을 흘끗 보았다. 공포로 그녀의 콧구멍이 넓어졌다. **그가 봤을까?**

The only house over there was Shadrack's. Sula glanced at Nel. Terror widened her nostrils. **Had he seen?** (강조는 인용자 61)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유일한 거주자인 새드랙의 집에 찾아간 술라는 그 집의 깔끔함과 정돈된 모습, 그리고 편안함에 놀란다(61).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자신에게 다가온 새드랙을 피해서 집밖으로 달아나던 술라는 “혹시 그가 [봤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돌아서서 그를 쳐다 본다”(62). 새드랙은 “정육과 앞으로 올 시간으로 무거워진 채로 활짝 미소 지으면서”(62) 미처 묻지도 않은 그녀의 질문에 대해 “언제나”(62)라고 대답한다. 이 말은 그가 치킨 리틀의 죽음을 포함해서 그동안 술라(와 넬)의 모든 모습을 지켜왔다는 뜻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녀들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협박인 셈이다. 보크(Patrick Bryce Bjork)는 새드랙이 사고 장면을 보지 못했으며, 술라가 새드랙의 대답을 오해해서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지속되는 경험”(the constant untrustworthiness of human experience 71)으로 받아들인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새드랙의 진심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를 술라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텍스트는 새드랙의 대답에 이어서 곧 “술라는 계단을 달려 내려가 숲과 타오르는 태양을 지나 벨에게로, 강물의 어둡게 닫힌 곳으로 달려갔다”(62)고 처리함으로써 아무 일 없이 술라가 그곳을 도망쳐 나온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벨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술라가 새드랙에게 성폭행-혹은 모종의 성적 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벨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쉬, 쉬. 울지 마. 괜찮아.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쉬. 쉬. 자, 가자. 술라. 이제 가자. 그가 거기 있었어? 봤대? **벨원피스 허리띠는 어디 갔니?**”

Nel quieted her. “Sh, sh. Don’t, don’t. You didn’t mean it. It ain’t your fault. Sh. Sh. Come on, let’s go, Sula. Come on, now. Was he there? Did he see? **Where the belt to your dress?**” (강조는 인용자 62-3)

떨쩍하던 허리띠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사라졌을 리는 없고 설사 허리띠가 없어졌다고 해도 굳이 벨이 이 대목에서 그것을 언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유일한 설명은 허리띠를 풀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새드랙이 모종의 요구 즉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술라가 이에 응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개의 평자들은 이 대목을 낭만적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서래니(Agnes Suranyi)는 술라가 새드랙의 집에 벨트를 떨어뜨린 것은 “그 둘이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환유”(19)이며, “‘언제나’라는 새드랙의 수수께끼 같은 말 또한 그들의 관계를 강화시켜준다”(19)고 설명한다. 차민영 역시 “그가 말해주던 ‘항상’이라는 한 단어는 술라의 정신적 발전의 계기를 이루게 해주었다”(236)고 해석한다. 사실 이는 작품 후반부에 나타난 새드랙의 회상과 부합되는 해석이다. 새드랙은 술라가 죽은 이듬해인 「1941년」 장에서 자신의 고독한 삶에도 한 명의 방문객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상하는데, 그 방문객의 존재는 “자줏빛과 흰색이 섞인 어린아이의 허리띠”(156)로 증명된다. 여기서 허리띠는 어린 술라를 상징하

는 일종의 물신(fetish)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드랙은 “그녀는 자기에게서 뭔가를 원했다. 물고기나 일이 아니라 그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156)이라고 회상한다. 어린 술라와의 조우는 지금도 여전히 새드랙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아래의 두개골까지 보았고, 그녀 역시 그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로할 무슨 말을, 상처가 그녀의 눈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해 줄 무언가를 생각해내려 애썼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변화를**—피부가 벗겨져나가고, 피가 똑똑 떨어져 흘러내리고, 그 밑의 뼈가 드러나는 변화를—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영원성을 납득시키고, 안심시켜주려고 “언제나”라고 말했다.

효과가 있었다. 그 말을 하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고 상처가 사라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알려준 것을 지니고 달려갔지만 그녀의 허리띠가 풀렸고 그는 그것을 기념물로 간직해두었다.

But when he looked at her face he had seen also the skull beneath, and thinking she saw it too—knew it was there and was afraid—he tried to think of something to say to comfort her, something to stop the hurt from spilling out of her eyes. So he had said “always,” so she would not have to be afraid of **the change**—the falling away of skin, the drip and slide of blood, and the exposure of bone underneath. He had said “always” to convince her, assure, of permanency.

It worked, for when he said it her face lit up and the hurt did leave. She ran then, carrying his knowledge, but her belt fell off and he kept it as a memento. (강조는 인용자 157)

얼핏 보기에 이 대목은 두려움에 빠진 어린 소녀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새드랙의 위로가 효과를 발휘해서 소녀의 얼굴이 밝아졌다는 한 편의 동화 같은 장면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의를 요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라는 말과 ‘기념품’이라는 말이다. 먼저 새드랙의 조언의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나는' 현상을 동반하는 변화이다. 이는 성폭행에 동반되는 일반적인 증상들이다. 즉 어린 소녀를 달래서 성관계로 유도하는 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드랙의 조언이 효과를 발휘해서 소녀의 얼굴이 밝아졌다는 대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주의할 점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가해자의 기억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새드랙의 기억 속에서 술라는 자신이 해 준 위로로 인해 얼굴이 밝아지고 상처가 사라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방금 실수로 어린 아이를 죽인 술라가 새드랙이 하는 말 한 마디를 듣고 얼굴이 밝아지고, 상처가 사라졌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더구나 새드랙의 집에서 도망쳐 온 술라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새드랙의 기억이 왜곡된 자기 합리화일 가능성을 정황적으로 제기한다.

결정적으로 새드랙의 기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 사람의 만남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정욕과 앞으로 올 시간으로 무거워진 채로 활짝 미소 지으면서”(a great smile, heavy with lust and time to come 62) 술라를 쳐다보는 새드랙의 시선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앞으로 올 시간”이라는 표현은 술라에 대한 새드랙의 요구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술라는 앞으로 새드랙의 반복적인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 요구는 ‘정욕’과 관련된 어떤 것임을 텍스트는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기념품”이라는 표현 또한 위 장면에서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자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소녀가 남기고 간 물건을 “기념품”으로 간직한다는 것은 무언가 어색하다. 이보다는 자신이 정복한 대상, 자신이 영원히 소유하게 된 대상의 일부를 정복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간직한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런 해석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사실은 “네 잘못이 아니야”(63)라는 벨의 말이다. 표면적으로 이 말은 친구를 위로하는 진심어린 말로 들린다. 하지만 다른 편으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라는 함의를 지닌 냉정한 선긋기일 수 있다. 너의 잘못이건 아니건 어디까지나 너의 문제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아마 당시 벨이 술라의 입장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네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물론 이는 지나칠 정도로 깔끔한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소심한 성격을 지닌 벨의 자연스런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술라가 과연 이런 벨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이다. 술라로서는 자신과 흥금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가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냉정하게 자신과 선을 긋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온 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미정은 “이 우연찮은 살인의 현장에 목격자로 있던 벨은 술라의 비밀을 지켜주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둘의 우정엔 틈이 벌어지게 된다”(60)고 지적한다. “벨과 술라는 장례식 내내 서로 손을 잡지도, 마주보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 틈이, 간격이 있었다”(64)는 텍스트의 언급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벨은 장례식 도중에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죄선고를 받고 신도석에서 목매달린 것 같은 느낌”(65)을 받는다.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술라임을 벨은 재삼재사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인이 된 술라가 벨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이로 인해 벨의 정을 망가뜨리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술라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까닭 없이 상처를 안겨주는 팜프 파탈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먼저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를 가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억측이 아니라는 근거로는 남편 주드(Jude)와 술라의 정사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벨이 혼자 남게 되자마자 치킨 리틀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다음 장면을 들 수 있다.

일단 안에 들어가자 그녀는 변기 옆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고 한 손은 차가운 욕조의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내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 . . 내부에서. 움찔거림, 진흙과 죽은 잎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녀는 치킨 리틀의 장례식에서 보았던 여자들을 생각했다. 상여에 대고, 흙을 파낸 무덤가에서 악을 쓰던 여자들. 그녀가 부적절한 행동이라 여겼던 것이 지금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듯했다.

Once inside, she sank to the tile floor next to the toilet. On her knees, her hand on the cold rim of the bathtub, she waited for something to happen . . . inside. There was a stirring, a movement of mud and dead leaves. She thought of the women at Chicken Little's funeral. The women who shrieked

over the bier and at the lip of the open grave. What she had regarded since as unbecoming behavior seemed fitting to her now; (107)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여겼던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배신당한 상태에서 벨이 치킨 리틀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던 여인들의 비통한 심정과의 동일시 때문이다. 그러나 벨이 목격한 장례식이 치킨 리틀의 장례식 하나뿐이었을 리는 없고 모든 장례식—특히 자연사나 병사가 아닌 사고로 인한 때 이른 죽음—의 경우 비통함과 애곡이 있기 마련임을 감안할 때, 바로 이 순간 벨이 치킨 리틀의 장례식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즉 현재 술라가 자신에게 행한 배신행위와 자신이 과거에 술라에게 했던 배신이 치킨 리틀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벨은 “지옥의 진짜 끔찍한 점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점이야”(107)라는 술라의 말을 떠올린다. 물론 이 말은 오래 전에 다른 맥락에서 술라가 한 말이지만 현 상황에서 벨이 회상하는 순간 묘한 울림을 갖는다. 마치 현재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읽히는 것이다. 벨은 잊어버렸겠지만 그가 했던 배신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것은 지옥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술라의 저주가 되는 셈이다. 결국 벨은 “술라가 틀렸어. 지옥은 만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야. 바뀌는 것이 지옥이야”(108)라고 애써 술라의 말을 떨쳐 버린다.

물론 술라의 동기를 벨에 대한 의식적인 복수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보다는 술라의 무의식에 각인된 어떤 상처가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층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라가 주드와 섹스를 하는 것을 벨에 대한 의식적 복수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무의식적 복수 동기와 더불어 벨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드와 섹스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술라가 벨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치킨 리틀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계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열 두 살이던 술라가 자신을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엄마(한나)의 말을 우연

히 옛것게 되면서부터였다. 이 사건을 통해 술라는 이 세상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텍스트는 말한다(118-9). 그러다보니 술라는 벨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과 벨이 하나가 아니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텍스트는 설명한다(119).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러한 술라의 심리를 잘 설명해 준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와의 이차관계를 중심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가 바로 상상계이다. 이 단계에 처한 유아는 거울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 자아이다. 여기서 유아가 거울에 나타난 이미지를 자기라고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인정이다.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 따르면, 자아는 거울 속의 이미지를 대타자[어머니]의 인정을 얻어 자기로 받아들인 것-자기와 동일시 한 것”(임진수 80)이다. 물론 이러한 상상계적 자아는 진정한 자기라고 볼 수 없고 상징계적인 자기 즉 주체로 발전해야 하는 단계이며, 따라서 일종의 허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를 거치지 않고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술라의 경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와의 이차 관계가 와해되고 그 결과 자아를 형성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외상”(앨런 41)이라고 부른다.⁵ 술라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방임되어 있었으며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적 부재이며, 이는 애착외상을 초래한다(김화정 39).

결국 “자신이 친밀감을 느끼던 그 단 한 사람의 소유욕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119)는 텍스트의 설명처럼 처음부터 술라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재로 인한 애착외상에 시달렸으며, 이를 벨에 대한 의존과 독점적 소유로 메우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이 떠난 사이에 주드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벨이야말로 먼저 자기를 배신한 것으로 술라가 여겼을 수 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즉 다시 한 번 벨과의 독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열망에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는 십여 년 전의 배신행위에 대한 복수심에서 술라는 주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결국 저자는 술라에 대해 “그녀는 자신

⁵ 앨런에 따르면, “심리적 부재(psychological unavailability)가 애착외상을 초래하는데 . . . 심리적 부재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의 학대라고 말할 수 있다”(41).

만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오로지 그것들에만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즐겁게 만들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118)고 결론짓는다. 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솔라의 긍정적 면모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내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행동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뒤섞인 평가이다. 계속해서 저자는 솔라가 보이는 이런 행동방식의 동기를 “그녀에겐 자아라는 게 없었다”(119)는 다분히 부정적인 분석에서 찾는다⁶.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솔라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의 무차별적인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면, 넬의 경우 그녀의 트라우마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경험으로 촉발된다. 넬의 증상은 주로 회색 공이라는 환상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겁에 질려 일어섰다. 바로 오른쪽 허공, 시야를 벗어난 곳에 뭔가가 있었다. 볼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형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회색의 공이 바로 거기에 떠 있었다. 바로 거기. 오른쪽에 회색의 지저분한 것이 조용하게 진흙투성이의 끈을 문쳐 만들었지만 무게가 없고 솜털로 뒤덮였지만 악의를 품은 끔찍한 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공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눈을 감고 지나쳐 욕실 밖으로 기어 나와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

She stood up frightened. There was something just to the right of her, in the air, just out of view. She could not see it, but she knew exactly what it looked like. A gray ball hovering just there. Just there. To the right. Quiet, gray, dirty. A ball of muddy strings, but without weight, fluffy but terrible in its malevolence. She knew she could not look, so she closed her eyes and crept past it out of the bathroom, shutting the door behind her. (108-9)

이 회색 공의 환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는 여름 내내 그 회색 공, 그녀 주위의 빛 속에 항상 등등 떠 있지만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털과 끈과 머리카락이 문쳐진 작은 공과 더불어 살았다”(109)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⁶ 앞서 새드랙이 전쟁 중 경험한 외상으로 인해 자아 상실의 위기에 몰렸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솔라는 새드랙과는 다른 동기에서 자아 상실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이 환상은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28년이 흐른 뒤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 공의 정체가 밝혀진다. 길레스피(Carmen Gillespie)는 이 공이 “주드가 아니라 술라를 향한 갈망의 고통”(202)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길레스피와 커비첵(Diane Gillespie & Missy Dehn Kubitschek)은 이 더러운 공이 “저속한 자기만족을 주는 선한 여성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벨이 일생동안 행해온 극단적인 자기억압을 대변한다”(33)고 해석한다. 살바토르(Anne Salvatore)는 벨이 내면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부하고, 직면을 거부하는 증거가 바로 회색 공이라고 해석한다(164). 김미정은 이 회색 공은 “지나친 자기억압으로 인해 기괴하게 뒤틀러버린 그녀의 훼손된 자아를 상징”(70)한다고 해석한다. 이 회색 공의 정체가 술라를 향한 갈망이든 스스로 억압해 온 왜곡된 자아이든, 이것이 억압과 관련된 것이고, 그 결과 극심한 고통을 벨에게 유발했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또한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정작 그리워 한 대상은 주드가 아니라 술라였음을 뒤늦게 깨달은 벨이 “오 하느님, 술라야”(174)라고 울부짖는 장면은 여러 평자들에 의해 “흑인 여성간의 여성적 연대는 다시 되살아난다”(김미정 70)거나, “흑인여성의 자아를 억압하는 현실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술라의 변혁의 정신을 저자가 긍정하고 있다”(이승은 147)는 식으로 해석된다. 와그너 마틴(Linda Wagner-Martin) 역시 이를 “화해의 장면”(32)으로 해석하며, “모리슨이 인간의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소설을 마무리한다”(Toni Morrison and the Maternal 32)고 본다.

이와 같은 벨의 자기인식 혹은 술라와의 화해에 이르는 직접적인 계기는 에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다. 에바는 양로원을 찾아온 벨에게 “어쩌다가 그 어린 소년을 죽였는지 내게 말해”(168)라고 요구한다. “난 소년을 강물에 던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건 술라였어요”(168)라는 벨의 부인에 대해, 에바는 “너. 술라. 무슨 차이가 있니? . . . 넌 지켜보지 않았니?”(168)라고 비난한다. 도망치다시피 양로원을 떠난 벨에게 오랫동안 억압해 둔 진실이 기억난다. 그것은 “치킨의 손이 미끄러져 나가던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좋았던 기분”(170)이다.

오랫동안 벨은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기분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었을까?”

그 세월 내내 그녀는 술라가 통제불능이던 순간에 자신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공포에 질리고 수치스러워하는 술라의 두 눈에 동정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남몰래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런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녀가 성숙함, 침착함, 동정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신나는 자극에 뒤따르는 평정심에 불과한 것 같았다.

She hadn't wondered about that in years. "Why didn't I feel bad when it happened? How come it felt so good to see him fall?"

All these years she had been secretly proud of her calm, controlled behavior when Sula was uncontrollable, her compassion for Sula's frightened and shamed eyes. Now it seemed that what she had thought was maturity, serenity and compassion was only the tranquillity that follows a joyful stimulation. (170)

몇몇 비평가들은 치킨 리틀의 죽음에 전적인 사고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허쉬(Marianne Hirsch)는 치킨의 죽음은 “성인들의 이성애와 엄마 되기에 대한 술라와 넬의 무의식적이면서도 반항적인 거부의 신호”(a signal of Sula and Nel's rebellious, if as yet unconscious, refusal of adult heterosexuality and motherhood 183)라고 해석한다. 맥스웰 또한 “치킨 리틀의 익사는 우연적이면서 동시에 의도적”(accidental and purposeful 243)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맥스웰은 둘 중 어느 누구도 치킨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런 우연적인 결과를 가져온 상황을 술라가 만들었다는 점과 함께 넬의 회상을 근거로 제시한다(243-4). 그러나 열 두 살짜리 소녀들이 강물에 빠져 버린 남자아이를 구조한다는 것이 오히려 억지스런 설정일 수 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술라가 만들었다는(create) 것이 그녀가 그 사고를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다소 지나친 해석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위 대목에서 당시 술라가 보인 반응이 공포와 수치심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수로 이웃에 사는 동네 꼬마를 죽인 순간에 술라가 느낀

공포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만, 그녀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술라의 수치심은 치킨 리틀의 죽음 이후 이의 수습 과정에서 그녀가 감수해야 했던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고를 전후한 그 짧은 순간에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새드랙의 오두막을 방문한 것밖에 없으므로 그녀의 수치심은 바로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벨이 느꼈던, 혹은 느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신나는 자극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린 시절 그녀의 경험으로 되짚어 가야 한다. 그로부터 이년 전, 열 살 나이의 벨은 외할머니의 임종을 위해 뉴올리언즈(New Orleans)로 가던 기차여행 중에 “딸과 남편을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18) 엄마(헬렌)가 백인 차장 앞에서 교태어린 미소를 짓는 것을 목격하면서 “기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는”(22) 경험을 한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벨은 “이게 나야. 난 그들의 딸이 아니야. 나는 벨이 아니야. 나는 나야. 나.”(28)라고 선언한다. 어쩌면 그날 이후로 벨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자신, 즉 진짜 벨을 찾기 위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여행이, 벨이 새로 발견한 ‘나다움’이,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사귄 힘을 주었던 것인지도 모른다”(29)는 텍스트의 언급처럼, 처음부터 벨에게 있어서 술라와의 관계는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벨이 추구한 자기 정체성은 두 가지 점에서 진정한 자기다움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첫째, 벨이 공동체의 인습에 순응함으로써 갖게 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 자신이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던 바로 그 정체성이다. 헬렌이 강요하던 “순종적이고 예의바른”(18) 벨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벨은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자기다움이 얼마나 근거가 희박한지를 술라가 초래한 외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 이후에도 벨이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십 오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깨닫는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술라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벨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능동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기가 누구와 다른지를 통해서 스스

로를 규정해 왔음을 에바의 지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자신은 “공포에 질리고 수치스러워하는 술라”와 다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으로 자기다움을 추구해왔음을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넬이 깨달은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다 술라 때문이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자기다움과 거리가 먼 위선과 독선으로 포장된 삶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임을 뒤늦게 넬이 깨닫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오만과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에 대한 관심으로 뚝뚝 뭉친 허울뿐인 자기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넬이 이 싸움에서 자신의 동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다. 이 한 번의 통곡으로 과연 그동안 쌓인 넬의 한이 얼마나 해소되었을 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설사 술라와 화해한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그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소설이 열린 결말”(44)로 끝난다는 카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평생 자신을 괴롭혀 온 외상을 넬이 상당 부분 극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II. 결 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라』는 주요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상실과 외상 및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가 일종의 액자처럼 작품의 앞과 뒤에 배치한 새드랙의 이야기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술라』를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새드랙은 1차대전 중에 포격을 당한 동료의 머리가 날아간 채로 몸뚱이만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기괴한 상황을 목격한다. 이 경험은 그에게 외상으로 남게 되며, 이후 새드랙은 전형적인 외상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인 환각, 공포,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 외딴 오두막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간다. 또한 포격을 당해 의식불명인 채로 쓰러진 새드랙이 일 년 이상을 머문 입원 경험을 하나의 장면으로 처리함으로써 저자는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일부와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통째로 잃어버린 새드

랙의 상실을 인상 깊게 재현한다. 결국 새드랙은 상실과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자살일’을 제정하고 시가행진을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새드랙의 노력은 어느 정도 공동체의 인정을 얻게 되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동참하게 된다. 비록 그 행진이 터널의 붕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비극으로 마감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새드랙의 노력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새드랙이 전쟁에서 입은 상실과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이라면, 반대로 술라는 자신이 입은 상실과 외상의 경험 때문에 공동체와 전쟁을 벌이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을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상실과 거부를 경험하고, 여기에다가 우연하게 마을의 어린 아이를 과실로 죽이는 외상적 체험을 겪는다. 그리고 이는 새드랙과의 외상적 조우로 이어지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바텀마을 공동체, 나아가서는 인간 사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심어 준다. 그나마 술라에게 외상의 극복 가능성이 되어 줄 수 있는 벨조차 절체절명의 순간에 냉정하게 술라에게 선을 긋는다. 술라는 자신이 경험한 주제할 수 없는 폭력적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파괴하려고 한다. 비록 그녀가 벌인 전쟁의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더 뭉치고 서로를 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라가 그런 변화를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으며, 그나마 그런 변화마저도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저자가 술라의 전쟁을 높이 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벨의 경우 술라와 주드의 배신으로 인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을 동시에 상실하는 외상적 경험으로 남은 일생동안 고통당한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에바를 통해서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이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한 술라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는 어린 시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엄마가 강요하는 순종적인 딸이라는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겠노라고 선언하지만, 이후의 삶에서 스스로를 억압하는 순응적 정체성에 만족하고 살던 벨로 하여금 지나온 삶을 반추하는 계기가 된다.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자신이 누군가와 다르다는 점에 자위하던 벨은 자신을 이 싸움으로 다시 소환해 낸 친구의 무덤 앞에서 뒤늦게 통곡

한다. 이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자신과의 결별의 순간이며, 술라로 대표되는 타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이다.

『술라』에서 모리슨은 어느 한 인물을 칭송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지른 인물의 내면에 숨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더 치중한다. 저자는 열린 결말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인간이란 누구나 이러저러한 외상에 시달리는 존재이며, 서로를 악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감춰진 상처를 볼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인 용 문 헌

- Allen, Jon G..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Trans. Kwon, Jung-Hye et al. Seoul: Hakjisa, 2010. Print.
[존 앨런. 권정혜 공역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2010.]
- Bjork, Patrick Bryc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The Search for Self and Place within the Community*. New York: Peter Lang, 1996. Print.
- Carmean, Karen. *Toni Morrison's World of Fiction*. New York: Whitston, 1993. Print.
-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6. Print.
- Cha, Min-young. "Toni Morrison's Sula: An Irony on Binary Opposi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9 (2009): 229-53. Print.
[차민영. 「토니 모리슨의 『술라』: 이항대립의 아이러니」 『세계문학비교연구』 29 (2009): 229-53.]
- Freud, Sigmund. *Lectures on Psychoanalysis*. Trans. Lim, Hong-bin & Hyekyung Hong. Seoul: Yeolinbooks, 1997. Print.
[프로이트, 지그문트. 『정신분석강의』. 임홍빈/홍혜경 역. 서울: 열린책들, 1997.]
- Furman, Jan. *Toni Morrison's Fiction*. Columbia, S.C.: U of South Carolina P, 1996. Print.
- Gillespie, Carmen. *Critical Companion to Toni Morrison: A Literary Reference to Her Life And Work*. New York: Facts on File, 2008. Print.
- Gillespie, Diane & Missy Dehn Kubitschek. "Who Cares? Women-Centered Psychology in *Sula*."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4.1 (1990): 21-48. Print.
-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Trans. Choi, Hyunjeong. Seoul: Planet, 2007. Print.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최현정 역. 서울: 플래닛, 2007.]

Hirsch, Marianne.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P, 1989. Print.

Hunt, Patricia. "War and Peace: Transfigured Categories and the Politics of *Sula*." *African American Review* 27.3 (1993): 443-59. Print.

Jackson, Chuck. "'A Headless Display': *Sula*, Soldiers and Lynching." *Modern Fiction Studies* 52.2 (2006): 374-92. Print.

Kim, Mi-jeong. "The Ethics of Feminine Love in Faulkner's *Go Down, Moses* and Morrison's *Sula*." *Studies in Modern Fiction* 22.3 (2015): 47-78. Print.

[김미정. 「윌리엄 포크너와 토니 모리슨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윤리'로서의 여성적 연대 비교」. 『현대영미소설』 22.3 (2015): 47-78.]

Kim, Myoung-joo. "Narcissistic Selfhood in Toni Morrison's *Sula*: As An American Cultural Symptom of the 1970s."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6 (2002): 279-99. Print.

[김명주. 「토니 모리슨 『술라』의 정체성 탐구 양상: 미국 1970년대 문화적 나르시시즘」. 『미국사 연구』 16 (2002): 279-99.]

Kim, Hwa-jeong. "Search for Afro-American Female Identity: A Traumatic Approach to Toni Morrison's *Sula*."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9.4 (2014): 29-50. Print.

[김화정. 「『술라』: 외상적 경험의 접근을 통한 주인공 술라의 정체성 탐구」. 『영어영문학』 19.4 (2014): 29-50.]

Kwon, Taek-young. "We was Girls together: Toni Morrison's *Sula*." *Studies in Modern Fiction* 9.1 (2002): 5-28. Print.

[권택영. 「토니 모리슨의 『술라』: 실재계와 몸의 정치성」. 『현대영미소설』 9.1 (2002): 5-28.]

Lee, Seung-eun. "Identity and the Female Bonding: A Black Woman's Search for Self." *Studies in Modern Fiction* 5.1 (1998): 125-52. Print.

[이승은. 「흑인 여성의 정체성 추구와 여성간의 유대」. 『술라』 『현대영미소설』 5.1 (1998): 125-52.]

Lim, Jin-soo. *From Partial Object to Object a*. Seoul: Powerbook, 2011. Print.

[임진수. 『부분 대상에서 대상 a로』. 서울: 파워북, 2011.]

Maxwell, Marilyn. *Male Female Fury: Gender and Violence in Contemporary American Fiction*. Lanham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Print.

Moon, Set-byul. "A Possibility of Black Manhood through Re-reading Black Veterans in Toni Morrison's *Sula*." *British and American novel* 22.3 (2015): 57-91. Print.

[문셋별. 「흑인 참전 용사의 재해석을 통한 흑인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토니 모리슨의 『술라』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22.3 (2015): 57-91.]

- Morrison, Toni. *Sula*. New York: Vintage, 2002. Print.
- Rice, Herbert W. *Toni Morrison and the American Tradition: A Rhetorical Reading*.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96. Print.
- Salvatore, Anne. "Toni Morrison's New Bildungsroman: paired Characters and Antithetical For in the *The Bluest Eye*, *Sula*, and *Beloved*." *Journal of Narrative Theory* 32.2 (2002): 154-78. Print.
- Schreiber, Evelyn Jaffe. *Race, Trauma, and Home: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2010. Print.
- Spillers, Hortens. "A Hateful Passion, A Lost Love." *Feminist Studies* 9.2 (1983): 293-324. Print.
- Suranyi, Agnes. "*The Bluest Eye* and *Sula*: black female experience from childhood to womanhood." *A Cambridge Companion to Toni Morrison*. Ed. Tally, Justine. New York: Cambridge UP, 2007. Print.
- Wagnor-Martin, Linda. *Toni Morrison and the Maternal*. New York: Peter Lang, 2014. Print.
- Youn, Suk-kyoung. "The Problems of Body in Toni Morrison's *Sula*."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8 (2007): 157-72. Print.
 [윤석경. 「토니 모리슨의 작품에 나타난 몸의 문제」. 『신영어영문학』 38 (2007): 157-72.]

신영현

주소: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17 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이메일: yhshin@hansung.co.kr